

보도 시점 (전매체) 12.20(금) 10:00

‘중소벤처 글로벌화 전략회의’ 개최 - 정책 이행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 -

- 국내외 공공·민간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그간 중소기업 글로벌화 현황 점검
- 최근 수출 중소기업을 둘러싼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국내외 협의체와의 협력도 지속·강화해나갈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0일(금)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랩에서 ‘중소벤처 글로벌화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중소기업 글로벌 지원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 중소기업을 둘러싼 대내외환경은 녹록치 않다. 고환율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애로와 우려가 커지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에 따른 대내외환경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속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점검하고 ‘24년 5월 글로벌화 지원 대책 발표 이후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내외 기관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금번 회의를 개최하였다.

현장에는 중소·벤처기업 관련 협·단체*, 한국경제인협회,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4대 은행(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감·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삼일PwC가 등 중소기업 글로벌화 원팀 협의체(이하 국내 원팀 협의체) 참여기관 등이 참여하였다.

*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벤처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글로벌최고경영자협회 등

온라인을 통해서 재외공관 중소기업 지원 원팀 협의체(이하 재외공관 원팀 협의체)를 대표하여 홍진욱 싱가포르 대사, 중기부의 해외 파견 주재관과 재외공관 원팀 협의체 간사 기관인 해외거점 소장* 등 30여명이 해외에서 참여하였다.

*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사무소

이번 회의는 먼저 오영주 중기부 장관의 중소기업 글로벌화 정책 이행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간 자유토의 순서로 진행되며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중기부의 적극적인 글로벌화 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위한 체계적 환경이 구축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더불어, 민간 협·단체들은 불안정한 대내외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중소기업이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면밀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금년은 민관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원년”이었음을 강조하고, “급변하는 대내외환경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인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의 고환율 등에 따른 어려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약 6,200억원 규모의 수출지원사업 등 '25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조기에 공고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국내외 협의체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 전환, K-수출 전략품목 육성, 수출정책 인프라 확충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글로벌성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민규 (044-204-7500)
	글로벌성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영훈 (044-204-7502)
	글로벌성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수민 (044-204-7550)
	국제통상협력과	담당자	서기관	박승호 (044-204-7556)
			사무관	정미라 (044-204-7553)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노성현 (032-450-1111)
담당자		주무관	이종수 (032-450-1132)	



더 아픈 환자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2024년도에 이렇게 지원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5.8)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7.24)



①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해외 원팀

- 25개 재외공관 참여
- 현지 진출기업 애로해소, 정보제공



국내 원팀

- 24개 협단체, 공공·민간기관
- 수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애로해소, 정보제공



국제 협력

- 베트남, UAE와 중소기업 위원회 개최
- 일본 경산성과 국장급 정책협의 채널 구축



② 대상별 정책수요에 맞춰 글로벌화를 든든히 뒷받침하였습니다.

중소기업

- K-혁신사절단 파견
- GBC 확대 운영
- 글로벌 R&D 시범사업
- 외국 전문인력 채용 지원



창업·벤처

- TIPS-CTS 연계 시범사업
- 8개 로펌과 스타트업 해외진출 FAQ 구축
- 한-일 펀드 1억달러 조성



소상공인

- 스타콘 페스타를 통해 라이콘 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 글로벌 쇼핑몰 입점지원



③ 역량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COMEUP

- 45개국, 1500여개 스타트업 참여
- 1,900건 비즈니스 매칭



동행축제

- 동행축제 개막식을 최초로 해외에서 개최
- 수출상담회, 팝업스토어, 온라인 기획전 등 진행



뷰티·푸드 우수제품 시상식

- 민·관이 유망기업 발굴·육성
- 시상식, 팝업 전시장 등을 통해 대외 홍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2025년에는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① 미래 유망분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신성장분야

- AI 기반 플랫폼 등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신설
- 테크서비스 관련 전자·IT 수출분야 확대



수출국 다변화

- 수출위기품목별 다변화 유망국 도출 및 정보제공
-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바우처 지원한도 상향



해외진출

- GBC 추가 개소
- 해외법인에 정책자금을 최초로 공급



② 중소기업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수출기업화

-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규정 절차 쿼리
- 국내외 협단체와 '(가칭) 혁신 소상공인 CES' 개최 검토



혁신형 내수, 수출 초보기업 밀착 지원

- 혁신성 보유 내수기업에 수출전략 수립 지원
- 수출 100만\$ 미만 기업에 무역 전문가, 수출 선배기업 밀착 지원



글로벌 정보 제공, 현장 의견수렴

- 주요 수출국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 가이드, FAQ 제작 확대
- 글로벌 동향 지속분석 및 모니터링
- 수출 업종별 분과 협의체 구성



③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K-뷰티를 글로벌 No.1으로 만들겠습니다.

민관 협력 강화

-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참여 플랫폼사 확대
- 수출바우처, 인증지원 등 정부사업 연계 강화



자금지원 및 규제애로 해소

- K-뷰티 펀드 조성
- K-뷰티 네트워크론(융자) 최초 도입
- 중기부-식약처 협업 수출규제 세미나 확대



해외 빅바이어 초청

- 민·관 합동 'K-뷰티 국제박람회' 개최
- 수출 유망국을 중심으로 빅바이어 상담회 개최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해나가겠습니다.**